

전남도,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전국 최다' 선정

목포 삼진항·보성 울포항 등 3곳 물양장·방파제 등 기반시설 확충 물김 등 서남권 수산물 거점 어항 "생활 여건 개선·어업·관광 기대"

목포 삼진항과 보성 울포항, 신안 생김항이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에 목포 삼진항, 보성 울포항, 신안 생김항 등 총 10곳 중 3곳이 선

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목포 삼진항, 보성 울포항, 신안 생김항의 본래 기능을 넘어 문화와 여가 활동, 해상교통 등 활용방안 확대를 위해 국가어항 지정 공모를 신청했다. 이에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세 곳이 지정됐으며, 타당성 조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1·2차 평가를 통해 상위 5개소에 포함된 목포 삼진항과 보성 울포항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

지 기본설계를 진행한 후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며, 6위인 신안 생김항은 차후 순차적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목포 삼진항은 476억원을 투입해 △물양장 750m △방파제 250m △호안 1km △준설 25만4000㎥ 등 사업을 통해 어선 수요 과부하 및 대형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인근 수산물품 수출단지과 낚시 복합타운 등과 연계해 종합수산업지원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보성 울포항은 445억원을 투입해 △방파제 연장 및 확장 560m △이안제 설치 220m 등 상시 접안이 가능하고 피항 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된다. 현재 추진 중인 울포해양복합센터, 수산유통플렉스 등과 연계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안 생김항은 490억원을 투입해 △방파제 640m △물양장 210m 등 설치로 신안 중부권의 피항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역 대표 수산물인 물김 위판 등 서남권 수

산물 거점 어항으로 발전과 함께 전남 서남권 해양관광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예비대상항 전국 최다 선정은 지역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민 생활 여건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문화·레저·관광·위케이션 등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김영록, 국회 여야 지도부에 지역현안 건의

특별자치도특별법 등 지원 요구 호남권 SOC 확충 등 핵심사업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정책과제와 내년도 국비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6건의 정책과제와 호남권 SOC 확충 등 10건의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핵심 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이 붕괴되는 등 소멸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

대 실현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산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직접화단지 신속 지정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국내 전력자급률 198%(전국 4위),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잠재량 전국 1위 등 글로벌 RE100 실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전라남도 국립과과대학' 설립 등 현안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의 2025년 국고건의 주요 핵심사업은 △국립 김산업진흥원 및 마른김물류단지 조성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등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가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조계원의원을 만나 25년 국고예산 관련 전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전남도 제공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지역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SOC 계획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준공이 임박한 '호남고속철 2단계', '보성-임성리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들의 차질없는 지원과,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도 건의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남 현안에 공감을 표하며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오지현 기자

'일 유바리市 실패사례'

1면서 계속 이같은 세 부담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기준 65세 고령자 비율은 53.80%에 육박한다.

유바리시의 지방소멸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로는 1979년 당선 이후 2003년까지 무려 24년간 장기집권하며 적자를 은폐하고, 독재경영을 일삼은 나카타 데쓰지

시장의 경영 실패와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된 포퓰리즘식 행정비용이 꼽힌다. 특히 나카타 시장은 평소 "차입금을 아무리 많이 써도 마지막에는 국가가 책임질 것이다. 재정이 어렵다고 투자를 줄일 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울 때 오히려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도 머리를 굴리겠지만, 우리가 더 민첩하게 머리를 굴려 국가로부터 돈을 빼내는 것이 최고"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나카타 시장은 재정적자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 등을 통해 15년 가량 적자 문제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납 정리기간인 4-5월을 이용,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며 적자 규모를 키웠다. 유바리시의 적자금액은 재정 규모의 8배가 넘는 353억엔까지 팽창했다. 올해 8월 기준 유바리시의 잔여 채무액은 66억2700만엔에 달한다.

석탄산업의 쇠퇴 이후 무리한 관광산업 전환을 위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던 '호텔 슈파로'와 '마운트레이스 스키장'을 총 46억엔에 매입했으나, 전문기업이 아닌 유바리시 관계자들이 경영에 나서면서만 성장적자에 시달렸다. 관광 기업들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주택, 목욕탕, 전기, 가스, 수도,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도 무분별하게 매입해 유바리시의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

도 나왔다. 현재 유바리시의 모든 관광 시설은 폐허로 남아, 한 때 이 곳이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았음을 알려주기만 할 뿐이다. "유바리의 모든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석탄 박물관)은 유바리의 부흥, 재건의 출발이 될 것"이라던 나카타 시장의 공언이 무색하게 유령도시로 전락해버린 유바리시. 현재 유바리시의 교통과 채무는 오롯이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 공고)

일성에스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밝오리엔씨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2024년 08월 06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08월 09일
"갑" 상 호 : 일성에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201311-0026674)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174(생목동)
대표이사 : 오 동 택
"을" 상 호 : 밝오리엔씨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201311-0069740)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326(인월동)
대표이사 : 신 영 빈

강진군 월평리태양광발전사업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월평리태양광발전소
- 발전소의 위치
전남 강진군 성전면월평리125-22 일원
- 사업 구역의 면적 : 19,726㎡
- 발전사업의 내용
- 발전설비용량 : 2.67MW
- 사업개시예정일 : 2025년 9월
- 운영기간 : 2025년 10월~2045년 10월 (20년)
- 발전사업신청자 : (주)전라하이웨이솔라
- 의견제출기간
2024년 08월09일 ~ 2024년 08월18일까지 (10일간)
- 의견제출방법
- 메 일 : pv3240@naver.com
- 전 화 : 031-932-3240
- 팩 스 : 031-932-3242

담양군 오계리태양광발전사업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오계리태양광발전소
- 발전소의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오계리435 일원
- 사업 구역의 면적 : 7,270㎡
- 발전사업의 내용
- 발전설비용량 : 998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5년 9월
- 운영기간 : 2025년 10월~2045년 10월 (20년)
- 발전사업신청자 : (주)전라하이웨이솔라
- 의견제출기간
2024년 08월09일 ~ 2024년 08월18일까지 (10일간)
- 의견제출방법
- 메 일 : pv3240@naver.com
- 전 화 : 031-932-3240
- 팩 스 : 031-932-3242

영암군 신덕리태양광발전사업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신덕2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의 위치
전남 영암군 학산면신덕리380 일원
- 사업 구역의 면적 : 7,922㎡
- 발전사업의 내용
- 발전설비용량 : 968W
- 사업개시예정일 : 2025년 9월
- 운영기간 : 2025년 10월~2045년 10월 (20년)
- 발전사업신청자 : (주)전라하이웨이솔라
- 의견제출기간
2024년 08월09일 ~ 2024년 08월18일까지 (10일간)
- 의견제출방법
- 메 일 : pv3240@naver.com
- 전 화 : 031-932-3240
- 팩 스 : 031-932-3242

광고문의

팩스 : 031-932-3240
전화 : 031-932-3240

전남일보